

高麗時代 鐵畫瓷器의 成立과 展開

장 남 원

머리말

張南原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研究員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文學博士

도자의 鐵畫 기법은 鐵砂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그리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시문방법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 철화기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곳은 그 동안 全南 海南 山二面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방 일대 청자요장이 주 생산지로 알려져 왔고, 그 연원도 中國 廣州 西村窯²나 河北 磁州窯·定窯, 陝西 耀州窯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 국내 철화도자의 개시시기에 대해서도 크게 10세기로 보는 견해와 11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어 그 인식의 차이가 컸다.

그런데 최근 窯址 발굴 성과가 추가되면서 철화자기 제작지가 한반도 중서부 지방 및 강원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한 양상을 보였고 고고학적 선후관계가 드러나면서 그 개시시기와 변화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청자 외에 白瓷로도 생산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瓶, 壺, 長鼓 등 특수 기형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다가 차츰 일상용기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³ 나아가 각지의 墳墓와 생활유적 등에 대한 조사성과의 축적으로 다른 도자들과의 상호 관계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⁴ 편년추정이 가능한 자료

* 필자의 논저: 『康津類型 共有 現狀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9;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2003;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63, 韓國大學博物館協會, 2004 等.

¹ 같은 기법을 두고 '鐵繪', '繪高麗' 등으로 불려왔으나 최근 연구자 간에, 그리고 국가표준유물검색 시스템 등에서는 '철화'로 명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² 尹龍二, 『莞島海底出土 陶瓷器의 綜合的 考察』, 『韓國陶瓷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p.160-203.

³ 『海南郡 山二面 靑磁陶窯址—全南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木浦大學校博物館, 1987).

⁴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2003), pp.108-115.

들이 알려져 제작 및 사용시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래 유물에 대한 문양과 기형의 양식을 위주로 주목해 온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철화기법의 제작특성과 고려철화의 시작 및 전개과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여러 지역 가마터의 철화자기 제작 양상과 출토지의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고려시대 철화기법을 사용한 도자들의 위상과 제작 연원, 변화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개략적이거나 편년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고려시대 鐵畫瓷器에 대한 기존의 이해

철화자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으나 기술적 연원이나 편년 등에서는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高裕燮은 철화청자가 중국 北方窯의 요업기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고,⁶ 노모리 겐(野守 健)은 고려도자의 전개과정을 4단계로 나누면서 상감청자 전성기에 鐵畫, 鐵形, 辰砂, 黑釉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철화청자와 白靑靑瓷을 아울러 '繪高麗'라 명명하였으며 철화기법이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인 肅宗 연간에 중국 宋·元의 磁州窯 영향으로 시작되고, 13세기 말-14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발달했다고 보았다.⁷

하세베 가쿠치(長谷部樂爾)는 철화청자를 고려자기 가운데서도 이색적 존재로 보았다. 그는 고려의 철화가 월주요 청자의 철화기법을 계승했다가 북송대 이르러 광주 서촌요의 발달로 그 영향을 받고, 11세기 말경부터 12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고려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고려 철화청자의 유형을 A·B·C·D 4단계로 나누었는데 A는 초기에 속하는 유형으로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기에 해당하고, B는 청자의 최전성기에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12세기 전반부터 후반에 해당하며, C는 가장 그 유례가 많은 자유분방한 철화문이 시문된 것으로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해당하고, D는 말기에 속하는 유형으로 13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⁵ 기존 연구는 주로 '철화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러 발굴과 지표조사, 소비지 유적에서는 청자뿐 아니라 '철화백자'도 생산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통괄하여 '철화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⁶ 高裕燮 著·秦弘義 譯, 『高麗靑瓷』 삼성문화문고 94(삼성문화재단, 1977). 고유섭은 철화청자를 '靑靑磁'라 하여 白土나 黑土로 그림을 그린 것이며 산화 번조하여 황갈색을 띠며 거친 태토를 가졌다고 하였다.

⁷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國書刊行會, 1944).

崔淳雨는 고려도자의 변천과정에서 철화 도안이 치밀하고 환원번조로 유색이 좋은 것은 중국 宋代 瓷器의 영향으로 보았다.⁹

니시다 히로코(西田宏子)는 철화청자의 유색이 다른 청자와 다르고 기형 역시 중국적이라고 하면서도 서촌요와 고려의 철화청자를 직접 대비하기에는 조형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南部 해안 지역에 위치한 수출용 철화청자류의 제작시기가 11-12세기인 점을 감안하여 고려를 그보다 늦은 시기로 추정하였다. 특히 문양의 짜임이 촘촘하고 표현이 섬세한 이른 시기 유형은 磁州窯 의 의장에 강하게 영향받았을 것으로 보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고려적으로 바뀌어간다고 보았다.¹⁰

鄭良謨는 10세기경을 국내 철화문 발생기로 보았고 11세기 말-12세기 초에는 중국 북방의 耀州窯와 磁州窯, 남방의 長沙窯와 西村窯 등의 영향으로 당초문이나 화문을 그린 철화청자가 제작되었다고 하였다.¹¹ 그는 특히 철화 문양들 가운데 동체의 아래 위를 문양대로 나누고 동체 전면에 도안과 같은 문양을 그려넣은 것을 자주요 계통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종속문양 없이 동체에 회화적으로 중심 문양만을 그려넣은 것들을 고려적인 계열로 보았다.¹²

姜敬淑은 12세기 전반, 즉 인종 연간에 이르러 비색청자가 세련되며 상감청자는 徽宗 연간에 시작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시기에 압출양각 기법의 도입과 철화기법의 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¹³

이토 이쿠다로(伊藤郁太郎)는 고려 철화청자는 중국 영향 외에도 자체 변화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강진 및 부안과는 다른 생산체제 아래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하세베가 제안한 바, 고려의 철화가 자주요의 직접적 영향이 아닌 중국 남방과 더 연관성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완도 해저 유물의 인양 결과를 감안하여 하세베가 설정한 철화청자 변천과정에서 B와 C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⁸ 長谷部樂爾, 『鐵繪青磁·鐵彩手·鐵釉』,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學館, 1978), pp.179-189.

⁹ 崔淳雨,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學館, 1978), pp.131-178.

¹⁰ 西田宏子, 『高麗鐵繪青磁에 대한 考察-鐵繪青磁의 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29(國立中央博物館, 1981), pp.53-42.

¹¹ 鄭良謨, 『高麗青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韓國美術史學會, 1986), pp.1-18.

¹² 鄭良謨, 『高麗青磁』, 『高麗青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89), pp.268-283. 철화의 계열을 자주요적인 것과 고려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은 西田宏子의 시각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심문양만 있는 것을 고려적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중국 자국 내에서도 유사한 예가 많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¹³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162-213.

曹基正은 해남 지역 철화와 백화를 11세기경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기법은 이후 강진과 부안에서 고급의 상감청자가 발달하면서 위축되나 이후 12-13세기 강진이나 부안 지역에서 재등장하는 흑백문 기법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尹龍二는 인천 경서동 청자나 해남 진산리 청자와 같은 조절계 청자를 11세기 지방 양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자제작과 사용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이 존재함을 예시하였다.¹⁶ 특히 완도 해저 출토 조절 청자계를 비롯하여 철화청자를 11세기 후반부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중국 서촌요와 자주요 등의 철화기법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았다.¹⁷

崔健은 12세기를 강진과 부안이 중심이 되고 다른 요장이 소멸하는 청자생산의 암흑기라는 전제¹⁸ 아래 철화기법도 중심적 청자에서 개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심적 청자의 치밀한 문양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쉽고 거친 표현의 철화기법은 주변으로 밀려나 '주변적 청자'가 되면서 한 단계 낮게 취급되었다고 보았다. 이 같은 쇠퇴과정에서 珍山里 요지를 포함한 철화청자 생산 요장도 조형과 생산구조에 새로운 전환을 맞지 못하고 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⁹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철화기법이 중심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를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경으로 보는 점과 철화기법의 공예적인 위상에 관한 이해는 대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려도자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양식의 선후관계와 시문기법의 계통 등을 이해하는 데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고려 철화기법의 연원에 대해서도 월주요 철화기술의 잠재, 자주요 기술의 전래, 서촌요 기술의 전래 등 약간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4 伊藤郁太郎, 「高麗青磁の鐵繪と鐵彩」, 『高麗青磁の鐵繪と鐵彩』, 朝鮮陶磁シリーズ-9(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7), pp.18-20, 즉 자유분방한 것이 촘촘한 것보다 이른 시기라고 본 것인데 실제 발굴에서는 섬세한 유형이 하부 층위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고 註3 참조.

15 曹基正, 『綠青磁小考』(無等山窯·土拓陶磁文化研究院, 1987).

16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陶藝VI, 青磁(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p.73-93.

17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p.160-203.

18 崔健, 「青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美術史研究』 12(미술사연구회, 1998), pp.3-20.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이 제기되어야 함은 최근 여러 논고들에서 증명되었다. 張南原, 「康津類型 共有 現狀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31(韓國美術史學會, 2001, 9), pp.77-100.

19 崔健, 「鐵畫青磁의 特徵과 展開」,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靑瓷 III』(湖林博物館, 1996), pp.124-141. 그러나 요지 출토 양상과 소리지에서 상황으로 보면 적어도 강진이나 부안 등지에서는 고려중기로 들어 서면서 철화문 장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진산리 지역보다 철화기법이 늦거나 비슷한 시기에 발달했다고 파악된다.



도 1
熙宗碩陵 출토
鐵白畫點紋筒形蓋

그러면 우선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나타나는 철화자기들의 양상을 통해 철화자기의 쓰임과 위상을 살펴보자.

유적출토 상황으로 본 철화자기

墳墓에 매납되었던 철화자기의 종류와 제작시기

1) 熙宗 碩陵²⁰: 석릉 출토 청자편 가운데 철화를 위주로 장식한 것은 없었고 白畫點으로 꽃처럼 둥글게 찍고 그 중심에 鐵砂로 점을 찍어 꽃무늬를 넣은 접시와 통형 잔이 있다^{도 1}. 석릉의 축조가 1237년경이었을 것으로 보면 이 같은 黑白點紋 청자는 13세기 전반기의 산물이다.

2) 東海市 三和洞 고분²¹: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석실분에서는 고려중기의 전형적인 압출양각완, 注子, 퇴주기, 대접 3점, 잔탁 3점, 향로 1점 등의 청자류와 함께 白釉로 만든 鐵畫唐草紋梅瓶과 栲匙, 淨瓶, 鐵畫唐草紋缸 등이 출토되었다. 철화문이 시문된 것은 모두 백자이며 태토가 거친데 유층이 얇고 만듭새가 청자에 비해 많이 조약하여 인근 강원도 지역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동반 청자와 중국백자의 편년으로 볼 때 12세기 중엽 이후 생산품으로 추정된다.

3) 忠州 直洞 고분군²²: 석곽묘 A-7호에서 元豐通寶(1078-1085)와 함께 철화문 매병이 출토된다. 매병의 형태나 동체의 철화문은 동해시 삼화동 고분 출토 것과 유사하며 유색은 황색을 띤다. 1078년 이후의 무덤일 것이다.

4) 慶山 林堂지구 고분²³: A-I 구역 48호 토광묘에서는 외반형 접시들과 함께 철화문 청자병이 동반 출토되었다. A-I 구역 117호 토광묘에서도 철화문을 그린 병이 발견되었다. 청자들은 동시대 고급청자들과 비슷한 동반관계를 보이지만 대체로 질이 거칠어 지역생산품으로 추정된다.

5) 忠州 丹月洞 고분군: B-3호 석곽묘에서 청동제 수저, 동곳, 시유도기편 등과

²⁰ 『江華碩陵』(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²¹ 鄭良謨,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考古美術』 129 · 130(韓國美術史學會, 1976), pp.19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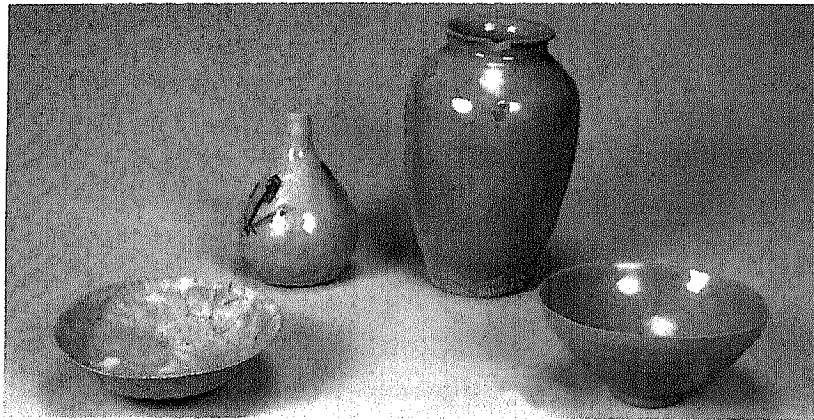
²²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忠州工業專門大學校博物館 · 忠州市, 1986), 圖13, 圖版 28-2.

²³ 『慶山林堂遺蹟』(I) · (III)(한국토지공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함께 철화청자 油瓶이 출토되었다. 반구형 구연에 구연부 끝이 들대를 이루었으며 동체는 약간 가로로 팽창되었으나 둥그스름하다. 어깨에서 동체 중앙부에 걸쳐 활달한 필치로 철화당초문을 그렸다.²⁴ 이 밖에도 단월동 고분군에서는 이 지역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철화문 매병 또는 반구형 장경병 등



도 2
忠州 丹月洞
고분군 출토
鐵畫紋盤口長頸瓶



도 3
公州 金鶴洞 7호묘 출토
鐵畫紋瓶 外 일괄품

이 출토된 바 있다 도2.

6) 淸州 龍岩 유적²⁵: 청자를 동반하는 분묘는 수십 군데로 청자·도기·금속기 등이 함께 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7호 토광묘에서는 철화문이 있는 반구병이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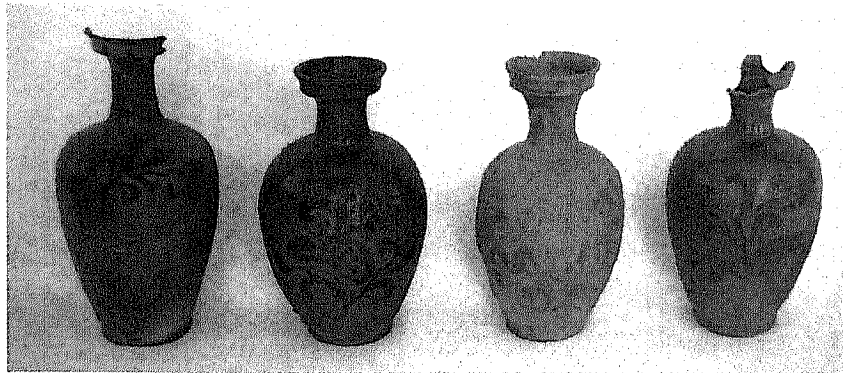
7) 公州 金鶴洞 고분군²⁶: 청자류와 銅鏡, 동전류가 함께 매장되었는데 특히 8호 묘에서 음각 연판문 장식의 대접과 折腰 접시, 철화문 병 등이 崇寧通寶(1102-1106)와 함께 매장되어 유물 매장의 상한은 12세기 전반 이전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도3.

²⁴ 『忠州 丹月洞 古墳群-2次發掘調査報告書』(建國大學校博物館, 1995), pp.76-77.

²⁵ 『淸州 龍岩遺蹟(II)-本文』(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2000).

²⁶ 『公州金鶴洞古墳群』(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2000).

도 4
 長興 下方村 고분군 출토
 靑瓷鐵畫紋盤口長頸瓶



8) 長興 下方村 고분군: 전남 장흥 유치면 대리에서 현재까지 12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대리의 무덤과 고려시대 건물에서는 다량의 기와들과 청자편, 도기편들이 확인되는데 발견되는 청자는 대부분 강진 용운리 10-II '가'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해남산으로 추정되는 동반품 반구장경병의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도4.

표 본묘 출토 철화청자

	유적명	출토 철화청자	편년 보조자료
1	熙宗 碩陵	靑瓷鐵白畫紋 반, 접시	熙宗 1237년 沒
2	東海市 三和洞 고분	白瓷鐵畫唐草紋梅瓶, 白瓷접시, 白瓷淨瓶, 白瓷鐵畫唐草紋缸	동반 청자는 용운리 10-II-나(다)와 비교됨
3	忠州 直洞 고분군	鐵畫紋梅瓶	元豐通寶(1078-1085)
4	慶山 林堂지구	48호 토광묘: 鐵畫紋 청자병	
5	忠州 丹月洞 고분군	B-3호 석곽묘: 鐵畫靑瓷 油瓶	
6	淸州 龍岩 유적	107호 토광묘: 鐵畫紋 반구병	紹聖元寶(1094-1097)
7	公州 金鶴洞 고분군	8호묘: 鐵畫紋 병	崇寧通寶(1102-1106)
8	長興 下方村 고분군 (분묘12기)	청자병, 대접, 잔, 鐵畫靑瓷 반구장경병 디수	용운리 10-II '가' 유형 청자 동반

무덤에서 출토되는 철화청자는 항아리, 반구형 장경병, 매병 등이 비교적 많은데 대개 12세기 이후 유적에서 출토된다. 이들은 반상용 청자 발이나 碗, 접시 등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는 동반되는 청자나 백자들이 철화청자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어 무덤에서의 철화청자는 단독으로 매납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금속기나 고급자기, 도기들과 함께 구색을 맞추어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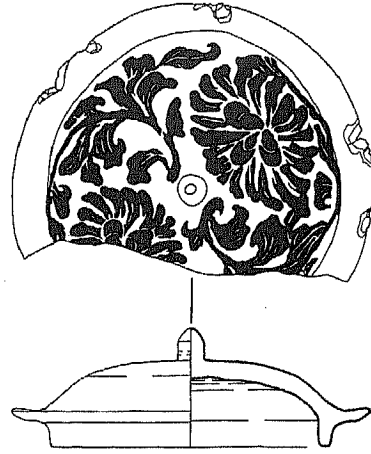
생활유적 출토 철화자기의 성격

1) 長興 大里 유적²⁷: 건물지 유구에 서 비색의 고급 강진산 청자와 해남산으로 추정되는 철화장고片이 출토된다.

2) 月出山 제사 유적²⁸: 『高麗史』에 기록된 '月生山神寺' 관련 유적으로 추정된다. 천황봉 제사는 國祭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최고급 청자들과 함께 철화문 병과 합 등이 출토된다.

3) 彌勒寺址²⁹: 청자가 발견되는 고려시대 층위에서는 해무리굽 완류부터 상감·철화·퇴화 등의 완·대접·잔·잔탁 등 다양한 기종이 동반되었다. 출토되는 고려도자 11,076점 가운데 무문 7,475점(67%), 음각 1,016점(9.2%), 양각 1,894점(17%), 堆花(白畫) 189점(1.7%), 象嵌 491점(4.4%)이며 鐵畫는 11점(0.09%)으로 각각 나타나 철화의 비중이 백화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철화가 백화보다 적은 것은 가마터에서도 12세기 후반 내지 13세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가마터 출토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⁰

4) 原州 居頓寺址³¹에서는 내면에 양각의 당초문이 있는 청자완과 外面을 연필문으로 꾸민 통형 잔이 출토되는데, 압출양각 절요 접시와 소형의 접시가 청자 철화문 뚜껑과 동반된다 도5. 강진에서도 용운리 14호(III형식, 모래빛음반침)와 사당리 41호(IV형식, 규석반침)에서 질이 좋은 비색청자 뚜껑 상면에 철화문이 시문된 것이 수습되어 이시기 요장의 일반적인 제작양상과 일치한다.



도 5
原州 居頓寺址 출토
靑瓷鐵畫紋蓋

27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II-가물막이댐 수몰지구 시굴조사보고』(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2), pp.131-178, 사진 12.

28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木浦大學校博物館·靈巖郡, 1996), 원색사진 5 참조.

29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I(도판편)(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원, 1989); 『미륵사지유물전시관』(전라북도 익산지구문화유적 관리사업소, 1997).

30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pp.115-116.

31 『居頓寺址發掘調查報告書』(原州市·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海底引揚 철화자기

해저에서 인양한 청자들 가운데 철화자기에 포함된 것은 莞島 어두리 해저 출토 청자이다. 1983-1984년에 걸쳐 전남 완도군 어두리 앞 바다 해저에서 고려시대 木船이 인양되었고 황갈색의 무문 조질계(녹)청자와 철화·철채 청자류 등 흑갈유계와 도기류를 제외하고는 30,646점에 달하는 청자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철화기법을 사용한 매병과 도6 장고 도7 등이 15점 수습되었다. 완도 해저인양 청자류는 같은 생산지에서 동일시기에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碗은 모든 기종들 가운데 고급으로 제작되었다. 실제로 전체 유물 가운데 60%에 달하는 19,256점이 대접류이며, 완은 1,096점으로 3.6%, 접시는 9,879점으로 32.6%에 이른다. 한편 반구장경병이 103점 출토되어 0.3%를 차지한다.³² 이들은 진산리 묘지 생산품들과 유사한 형태와 질을 보여주며 가마

터에서처럼 대형의 특수 기형에 활달하고 거친 문양으로 철화기법이 사용되고 있어 해남 일대가 생산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6 莞島 魚頭里 海底引揚 靑瓷鐵畫紋梅瓶

도7 窯址 출토로 본 철화자기

莞島 魚頭里 海底引揚 靑瓷鐵畫紋長鼓

1) 始興 芳山洞 窯址: III기층에서 3점의 철화 장고편이 발견되었다. 백토로 성형하고 밝은 황백색의 유약을 입혔으나 용융이 나빠 부분적으로 박락되었고 유면은 광택이 없다. 문양은 외면에 鐵砂 안료로 붓과 같은 시문구를 사용하여 굵게 그린 당초문이다. 도8. 퇴적 층위상 III기층은 방산동 최후층에 해당되며 시기적으로 10세기 말경으로 이해된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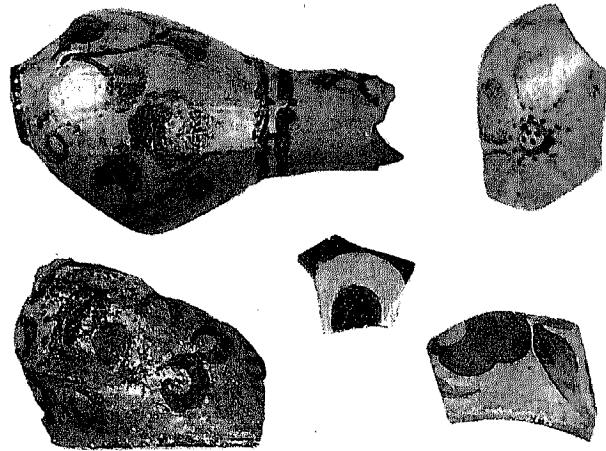
³² 철화문이 시문된 청자를 동반하는 완도 해저 출토 청자류가 감진 용운리 10호 II층과 기형상으로 보다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완도 출토 청자류의 제작시기를 後期 해무리굽 제작시기 이후로 보는 견해로는 이송희, 「莞島海底 出土 瓷器를 통한 綠靑磁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IV장 2절 참조.



도 8
 始興 芳山洞窯址 III 基層
 출토 白瓷象嵌長鼓(左)와
 白瓷鐵畫紋長鼓(右)

도 9
 龍仁西里 中德窯址 III 基層
 출토 鐵畫紋白瓷들

2) 龍仁 西里 中德 窯址: 용인 서리 중덕 요지에서는 1, 2차 발굴에서 모두 철화편이 출토되었다. 1차 발굴에서는 철화문양이 있는 파편이 20점 가량 수습되었다. 이들 파편은 태토에 沙粒이 많고 번조 후 적갈색을 띠며 기형상 長鼓로 추정된다. 유색을 푸른기를 머금고 있으나 일부에 연갈색을 띠며 내면에는 시유가 안 된 상태이다. 철화 문양은 흑갈색을 띠는데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몰골범으로 굵고 활달하게 그려졌다. 발굴보고자는 이들 철화편들의 釉나 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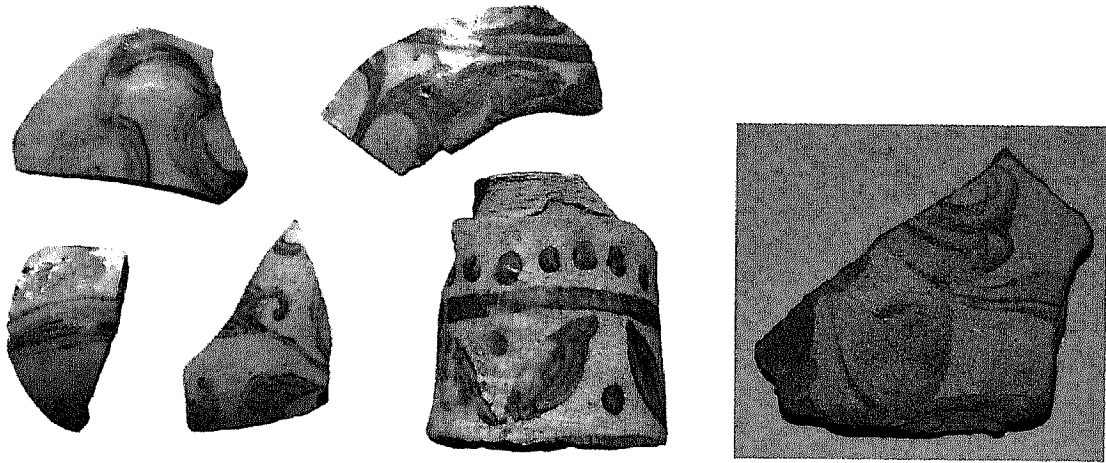


로 보아 용인 서리 II '가' 유형 백자류(I 유형보다 거칠고 내화토받침을 사용한 것, 굽 직경이 좁은 해무리굽 碗 등반)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았다.³⁴

용인 서리 중덕의 2, 3차 조사에서도 총 23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장고편과 도9 方形의 특수片 등에서 철화로 시문한 것이 수습되어 초기청자 요장 중에서는 다양한 양

³³ 『芳山大窯』(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2001), p.151; 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青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1), pp.65-98;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2002, 12), pp.132-135.

³⁴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查報告書 I(三省美術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pp.154-155.



도 10
龍仁西里上盤窯址 출토
白瓷鐵畫紋長鼓

도 11
漆谷昌平里窯址
지표수습鐵畫紋片

상을 보여준다. 철화기법은 모두 백자에서만 확인되며 주로 III기층에서 발견되었다.³⁵ 서리 III기층은 해무리굽완이 작아지고 굽 직경도 좁아지는 퇴화 해무리굽 동반층위이며,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와 비교하면 10-I 유형에 해당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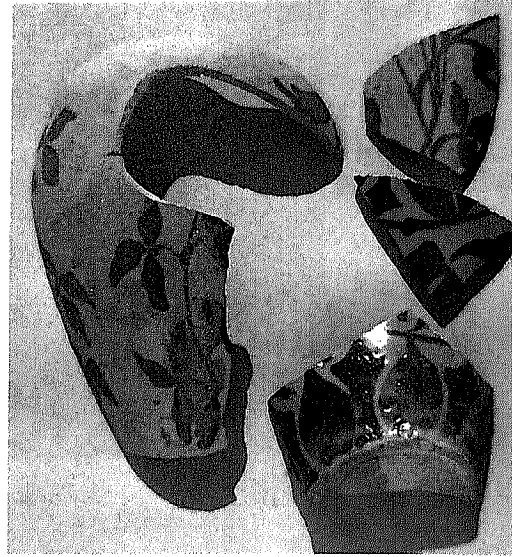
3) 龍仁西里上盤窯址: 용인 서리 상반 요지는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굽 접지면의 폭이 1cm 정도의 한국식 해무리굽 완 등과 함께 백자 철화편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장고의 동체 양쪽 볼록한 부위에 철화로 모란문이 대담하게 그려졌고 동체 중심의 통형 부위에는 철화선으로 문양대를 그리고 그 안에 이파리와 點을 번갈아 그렸다. 내면에는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것이 있다.^{도 10, 37} 3차 발굴 유물이 수습된 지역은 윤곽을 드러낸 상반 지역 최상층의 토축요 유구 퇴적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전면적인 퇴적층 관계 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발굴도 진행중이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漆谷昌平里窯址: 정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아니지만 전축요인 대구진

³⁵ 『龍仁西里高坵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II(湖巖美術館, 2003), pp.131-132, 308-309, p.146, 175, 177, 241, 257, 324, 344; 田勝昌, 『龍仁西里窯址出土遺物檢討』,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제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15-32.

³⁶ 湖巖美術館, 앞의 책, pp.196-197.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 상대 층위관계 및 편년 가능한 동반 유물이 출토되는 소비유적 등의 예로 보아 한국식 해무리굽완의 하한을 11세기 말 또는 12세기 초까지도 내려보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³⁷ 장고의 경우 동체가 길다란 형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는 시유가 되어 있고 중심쪽으로는 시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인동 요지 조사를 계기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전축요계 토축요로서 요도구와 기형에서 전축요의 여운이 강하게 남은 곳이다. 이 가운데 철화편이 포함되어 있다.³⁸ 그 밖에 현지 지표조사에서도 철화편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도 11}³⁹

5) 康津 龍雲里 10號 窯址: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에서 철화문이 나타나는 것은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변조받침으로 백색내화토 빚음받침 사용)에 속하는 'H형' 병이 층위상으로 가장 빠른 예이다.⁴⁰ 어깨는 팽창되었으나 동체 아래쪽이 가름하고 치마처럼 생긴 높은 굽을 따로 붙인 형태이다. 동체와 저부의 접합부에 가는 돌대선을 둘러고 굽 접지면도 밖으로 말려 돌대를 형성하였다. 태도가 치밀하고 유색도 비색을 띠는 양질로서 철화문은 동체 중심부 양쪽에 모란절지형으로 그려졌으며 양면의 주문양 사이 어깨 부위 두 곳에는 장식적인 잎무늬를 그려넣었다.^{도 12}. 용운리 10호 II층 '나' 유형(변조받침으로 모래빛음받침 사용) 경우 접시에서만 철화기법이 나타난다.

6) 康津 一帶 地表調査 窯址: 앞서 살펴본 용운리 10호 이외에大口面 소재 용운

도 12
康津 龍雲里 10號 窯址
II層(가 유형) 출토
靑瓷鐵畫紋瓶

도 13
海南 珍山里 17號 窯址
출토 靑瓷鐵畫紋瓶

³⁸ 김구근, 「大邱近郊의 初期靑磁窯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청자』(海剛陶磁美術館, 2000), pp.37-53.

³⁹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실 지표조사에 의함.

⁴⁰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圖版編(國立中央博物館, 1996);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編(國立中央博物館, 1997); 張南原, 『高麗中期靑瓷의 研究』, p.92.

리, 계율리, 사당리 지역의 지표조사보고를 보면 철화청자 출토 예는 다음과 같다. 용운리에서는 10호 이외에 1, 7, 14, 15, 50, 73, 74호에서 철화문편이 발견되며, 계율리에서는 19, 25, 36, 39, 42, 49호에서 수습되었다. 사당리에서는 7, 18, 41호에서 발견되었다.⁴¹ 물론 이는 지표조사이므로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7) 海南 珍山里 17號 窯址: 진산리 17호 요지에서는 총 760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대개는 소위 '녹청자'로 부르는 조질청자류이다. 이 가운데 철화기법은 매병으로 추정되는 병의 동체 도 13, 油瓶, 甕, 盤(또는 洗), 盒, 長鼓 등에서 시문되어 국내 요지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철화제작 양상을 보인다. 하층 퇴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비교적 양질이며 상층부로 가면서 조질화되는 경향이 있고, 철화문과 퇴화문도 하층부에서 출토된 것이 구조적으로 치밀하고 농담이 강하며 양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층 출토 유물의 문양은 치밀하지 못하고 線條 위주로 바뀐다.⁴² 동반 유물의 경우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 유물과 조합이 비슷하다.

8) 海南 一帶 地表調査 窯址⁴³: 진산리 일대에서 조사된 약 80개소 도요지 가운데 철화가 수습되는 곳으로는 진산리 1, 2, 3, 4, 5, 6, 7, 8, 9, 20,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9, 51, 52, 53, 54, 55, 65, 66, 69, 70, 71, 72, 77, 78호 등 약 40개 지역이다. 이들 요지에서는 철화문 장고 등 철화자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대부분이 소위 녹청자라 불리는 조질청자를 동반하고 있었고 일부 해무리굽 청자완이 동반되는 곳도 있었다. 철화 외에 白畵도 함께 제작되며 이 두 가지가 같은 기물에 시문되기도 한다. 한편, 흑상감이나 白彩·剝地기법 등도 시도되었음이 보고되었다.⁴⁴

9) 扶安 鎭西里 18號 窯址: 부안 진서리 18호 가마에서는 접시 F식(용운리 R식), H(용운리 U식)에 철화문을 시문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⁴⁵

10) 扶安 鎭西里 20號 窯址: 부안 진서리 20호에서는 소형의 접시 내면에 '卍'자형의 철화선을 그은 것이 출토되었는데⁴⁶ 이는 강진 용운리 10호 II층의 T형 접시에서도 시문된 예가 있다.

11) 扶安 柳川里 7區域(유천리 27, 28호) 窯址: 유천리 7구역 내 가마터 발굴에

41 『康津의 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 1992).

42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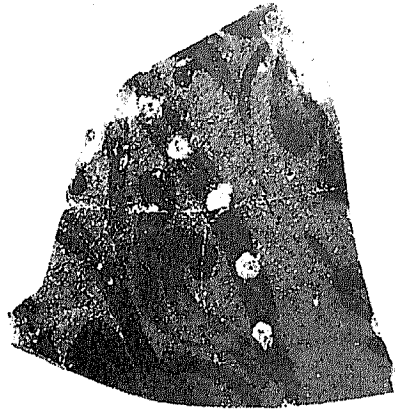
43 曹基正, 앞의 책; 『海南의 靑磁窯址』(海南郡·木浦大學校博物館, 2002).

44 曹基正, 앞의 책, pp.35-68.

45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1), pp.55-58.

46 『各地誌·發掘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0), p.121.

서는 鐵畫와 白畫가 함께 시문되거나 비슷한 문양 구조를 지니고 있어 발굴자는 鐵白畫로 함께 분류하였다. 출토 청자들 가운데 문양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27%이며 그 가운데 칠백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가량 된다.⁴⁷ 용운리 10호 II층에서 철화와 백화를 합쳐 16.6%가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유천리에서 칠백화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강진 용운리 10호에서는 이들 두 가지 기법이 접시에서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유천리에서는 통형 잔이나 팽이형 잔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도 14
陰城 篋里窯址 출토
靑瓷鐵白畫紋長鼓

12) 扶安 一帶 地表調査 窯址: 위 지역 외에 부안 일대 지표조사에서는 유천리 2구역 25호 요지, 유천리 7구역 新發見窯址, 진서리 1구역 1, 2호 요지 등에서 철화·백화로 점을 찍어 문양을 넣은 접시·완 등이 수습되었다.⁴⁸

13) 陰城 篋里 窯址: 음성 생리 요지에서는 鐵畫와 白畫로 당초문을 그린 청자 長鼓片이 발견되었다. 총 7점으로 기면은 외면쪽으로 급하게 굴곡지며 볼록한 것과 완만하게 벌어진 것이 있다. 내면은 사유하지 않고 외면에 세로 방향으로 구획한 후 문양대 안에 당초문을 시문한 것인데, 7점 가운데 3점은 세로로 그은 문양구획선 안에 白畫점을 등간적으로 찍었다. 질도 좋아 단면에서 정선된 회색 태토가 보이고 맑고 투명한 녹갈-청록색 유색을 띠는 청자유가 입혀졌다.⁴⁹ 해남 진산리 출토 장고편의 문양이 가로선과 선 사이 빈 공간을 백색 점을 찍어 點紋帶를 두고 있는 것과 약간 차이를 보이며 질도 더 단단하고 치밀하다 도 14.

14) 堤川 松溪里 窯址: 獅子嘯呻寺址로 더 잘 알려진 곳으로 인근에 요업 퇴적물이 있어 송계리 요지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접시 내면에 음각 앵무문이 있는 것과 대

⁴⁷ 이하 부안 유천리 7구역 출토 청자에 관한 내용은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 扶安郡, 2001), pp.295-301 참조.

⁴⁸ 『扶安 柳川·鎮西里靑瓷窯址 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⁴⁹ 『陰城 篋里 청자가미터』(忠北大學校博物館·(주)동부건설·(주)원림개발, 2002), p.70. 한편, 최근까지 발굴이 이루어져 음성 생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난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에서도 철화장고편이 출토되어(보고서 미간, 조사단 전언에 따름) 주목된다.



도 15
 梟川 松溪里窯址
 지표수습 鐵畫紋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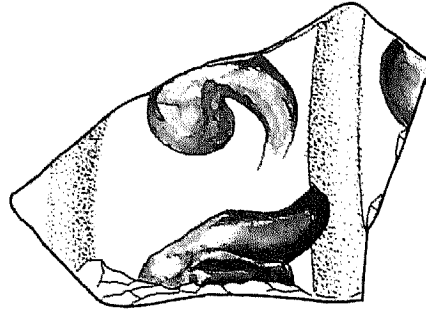
집 외면에 음각 연판문이 있는 편들과 함께 철화문 편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고 가마 폐기물 퇴적이獅子嘯呻寺址塔(1022년 조성) 주변 지표 15cm 이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1022년 이전에 운영되었던 가마로 이해되기도 하였다.⁵⁰ 그러나 필자의 현장 소견으로는 탑 주위는 정지작업이 이루어져 유적지로 조성된 상태였고 폐기물의 분포는 탑이 있는 평탄 지역의 남측 단애면과 서측 경작지, 북측 축대지점까지 산포되어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마치 탑이 가마 폐기물 퇴적층 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남측 단애면의 퇴적물은 도로와의 경계면을 보축하는 과정에서 재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022년 사자빈신사가 건립되어 사찰이 운영되다가 폐사된 후 요장이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필자도 이 지역에서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 접시 등과 함께 병 또는 장고의 일부로 추정되는 철화편을 수거하였는데 수거한 도편들은 청자라기보다 중서부 지방 초기요장의 최후층 백자와 그 질이 유사하다^{도 15}. 가늘고 길다란 백색 내화도 빛음받침과 기종으로 보아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에 해당된다.

15) 江陵 沙器店谷 窯址: 강릉시 사기점골은 정식으로 조사된 곳은 아니지만 최근 추가 답사에 의해 철화청자편 2점이 수습되었다.⁵¹ 한 점은 병으로 추정되는 기형의 동체 중심부에 열은 흑갈색으로 草文이 그려진 것이며 다른 한 점은 접시로 추정되는 기형의 내저에 철화선과 점이 그려져 있다. 사기점골에서 수습되는 다른 자기들은 음각, 압출양각, 상감 등의 전형적인 고려중기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어서⁵² 이들 철화편 역시 다른 자기들과 같은 시대 제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16) 楊口 方山 上舞龍里 3號 窯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상무룡리 3호 요지 지표조사에서 白瓷鐵畫 瓜形片이 수습되었다.⁵³ 과형 동체에 철화로 草葉文을 그린 것인데

⁵⁰ 최건,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제열과 변천—특히 9-10세기 자요의 홍망성쇠를 중심으로」, 『용인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제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78-80(사진 7 참조)에서는 강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중기 청자의 특징이 이 지역에서도 11세기 초에 나타나며, 이로써 초기청자의 하한을 10세기 말로 보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⁵¹ 본 지역은 강릉시 홍순옥 학예사가 발견하여 알려진 곳으로 철화편은 2003년 가을 강릉 지역 대홍수 이후 홍선생이 현장을 추가로 방문하여 수거한 자료이며 필자도 이를 실견하였다.
⁵²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p.106.

태토는 회백색을 띠며 기공과 잡물이 있으나 기벽은 얇다(도 16). 담록색이 감도는 유색은 약간 황갈색으로 변색되었다. 백자의 질은 양구 방산면 일대에서 수습되는 고려 말 백자류와 흡사하여 양구 방산 일대에서 고려 말 이전부터 백자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 16
楊口方山上舞龍里 3號窯
수습 白瓷鐵畫紋瓜形器片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철화기법의 개시 지역은 중서부 지역 전축요계 초기청자 요장이 먼저인 것으로 파악되어 시흥 방산동을 필두로 그 다음 시기 전축요계 가마인 용인 서리 일대와 경북 칠곡에서도 철화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남 해남 지역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11세기 말경에는 강진 지역에서도 철화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2세기 후반부터 해남 지역 철화자기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강진과 부안에서도 鐵白畫點이나 線紋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시기 요지 출토품 가운데 철화의 비중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⁵⁴ 앞서 살펴본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중덕·상반, 해남 진산리, 강진 용운리·계율리·사당리, 부안 진서리·유천리 일대 요지와, 음성 생리, 강릉 사기점골, 양구 방산 상무룡리 등지 외에 慶尙南道 梁山郡 花濟里, 釜山市 東萊區 溫泉洞과 北區 德浦洞에도 철화청자를 생산한 요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⁵ 따라서 초기 청자제작이 이후에는 전라도 이외에도 전국적인 생산분포를 보였고, 소비유적의 예로 보면 철화를 생산했던 지방 요장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출토 철화자기의 조형 특징

앞서 살펴본 철화생산 요지의 철화자기의 기형과 문양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장고, 반구형 장경병, 매병, 합, 뚜껑, 접시, 배개 등 일부에서만 철화문이 시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은 화문철지, 연판문, 선문, 점문 등이 주를 이룬다.

53 『楊口方山の陶窯址』(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양구군, 2001), pp.194-197.

54 張南原, 『高麗中期靑瓷의研究』, p.92.

55 尹龍二, 앞의 책, 본고 註2, p.506.

器種과 紋樣

1) 長鼓: 악기로써 백자와 청자로 제작하여 철화나 철채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 白畫가 함께 장식된다.⁵⁶ 내면은 시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양은 주로 장고의 양쪽 볼록한 부분에 그려지나 경우에 따라 중간의 기는 원통형 연결부에도 촘촘히 문양이 그려지는 예도 있다. 구성과 문양에 차이는 있으나 가로로 문양대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 칠곡 창평리는 전축요계 가마이며 방산동과 음성 생리를 제외하면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작된다.

2) 盤口形 長頸瓶: 반구형 장경병은 남부 지방 토축요계에서 주로 발견되며 용운리 9호 및 10호 I층 퇴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기형이다. 철화 반구병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 경질도기와 금속기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고 청자의 발생과 함께 도기질에서 자기질로 質的 상승한 예로 보기도 한다.⁵⁷ 그러나 강진을 비롯, 해남 진산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반구형 장경병은 동시대 고려 도기와 의 상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용운리 9호 요지 발굴시에 인근에서 청자와 유사한 조형을 가지는 도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삼흥리 발굴에서도 인접한 같은 요장 내에 도기가마와 청자가마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⁵⁸ 그러나 같은 시기 강진 지역에서는 매병이나 반구장경병에 음각이나 고부조 양각 등이 시문되고 철화문이 시문된 예는 알려지지 않아 해남 진산리 일대가 이들 기형에 철화가 시문되는 중심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양은 동체 중심부 양면 또는 어깨 부분에 주로 절지화문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흥 하방촌 고분군에서는 해남산으로 추정되는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 청자류와 철화문이 있는 반구형 장경병이 동반 출토되고 있어서 그 제작시기를 12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梅瓶: 철화문 매병 역시 해남 일대가 중심 생산지로 추정된다. 진산리 17호 요지에서는 저부에 넓게 철화 연판문대가 둘러진 매병이 출토되었으며 해남산으로 추정되는 완도 해저 유물들 가운데도 11점이 출토되었다. 풍만한 동체 양면에 절지형 화문이 그려졌는데 일부에 상하의 장식 연판문대를 넣은 것이 있다. 연판문대는 철채한 후 가장자리와 이파리 경계면을 깎아내는 기법을 사용한 것과 붓으로 그린 두 가지가 있으나 이들

⁵⁶ 철화 외에도 시흥방산동에서는 테토를 파내고 백상감을, 용인 서리 중턱에서는 테토에 자토를 입힌 후 자토 부분에만 백색으로 先상감한 후지백상감을, 함평 양제리에서는 흑상감을 사용한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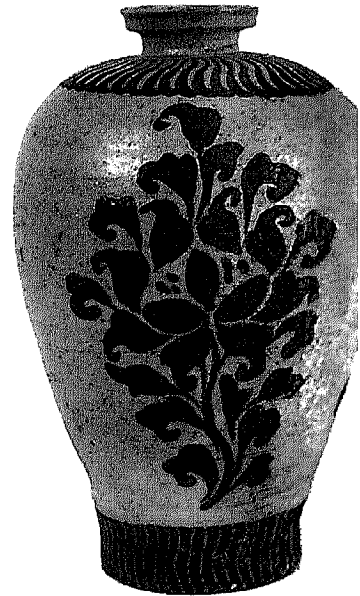
⁵⁷ 崔健, 「鐵畫青磁의 特徵과 展開」, p.134.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강진청자를 우리나라 발생기 청자로 볼 메에나 가능하다.

⁵⁸ 「강진삼흥리 저수지 송상사업지구내 도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구·(財) 湖南文化財研究院·國立光州博物館, 2002).

기법이 함께 사용된 것도 있어 시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도 17}.

4) 碗, 盞: 완이나 잔에 철화문이 시문되는 예는 드물지만 그나마 강진이나 부안 등지에서 제작되었다. 이들은 대개 양질의 비색청자에 남아 있는데 강진은 용운리 15호와 사당리 18호에서는 碗의 외부에 철화문을 시문하였고, 용운리 74호에서는 盞의 외면에 철화초문을 그렸다. 이들 모두 강진 III형식에 해당한다.

5) 접시: 중부 지방 초기요장과 해남 진산리 등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강진 일대와 부안 진서, 유천리 일대 요장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용운리 10호 II층에서는 '나' 유형 접시에서만 철화기법이 나타난다. 문양이 있는 접시 가운데 12.3%에 해당하며 철화문은 접시 구연에 단순한 線紋이나 내저면에 花紋을 그리는 정도로 나타난다. 그 밖에도 각종 瓶과 油瓶, 盒, 盞, 枕, 洗 등에서 철화시문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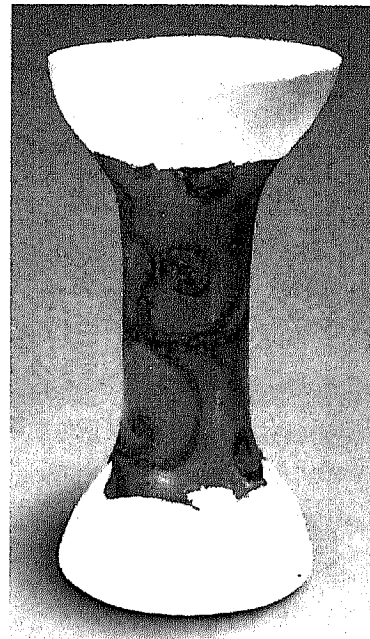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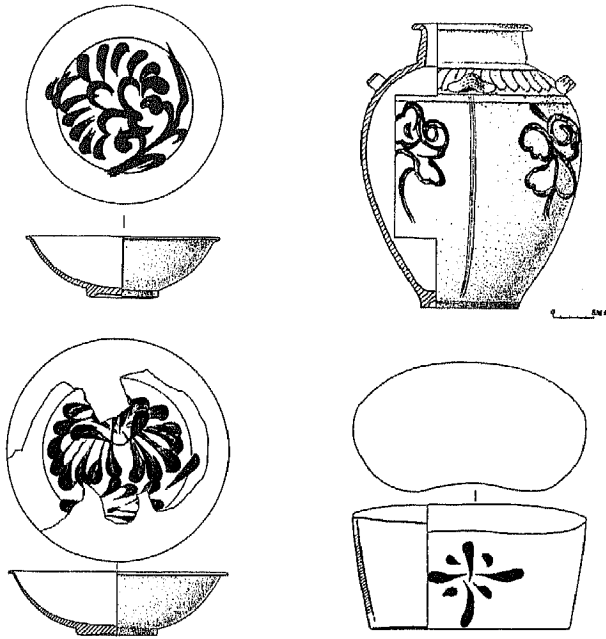
도 17
莞島 魚頭里 海底引提
靑瓷 鐵畫紋 梅瓶

이상 철화의 조형적 특징을 간략히 보면, 철화기법의 개시시기에는 주로 장고나 베개 등 특수 기종에서 나타나며 장고 외에 반구형 장경병이나 매병 같은 저장·운반용 생활기에 철화를 시문하는 것은 해남 지역에서 발달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강진 일대에서는 장고는 물론이고 매병과 반구형 장경병 등에서도 음각이나 고부조 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철화가 시문되는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병 중에는 구연이 수평으로 꺾인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문양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종에 따라 구성이 치밀한 것과 소략한 것이 있으나 해남 진산리 지역품은 대개 활달하고 철화시문 비율이 높아 전면을 꼭 차게 장식하는 예들이 많고 지방에서 제작되는 예들은 구성이 단순한 초화문이 많으며 문양도 성글게 나타났다. 강진과 부안에서는 고려중기 이후 완이나 잔, 접시 같은 소형기에 철화가 나타나며 특히 접시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시기가 늦을수록 鐵白畫點이나 線紋 위주로 바뀌어 가고 철화의 비중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黑花⁵⁹기법과의 관련성

중국에서 도자에 철사안료를 사용한 것은 그 연원이 오래이다. 이미 西晉時代 浙江 지역 古越瓷類에서 點이나 線 등을 간단히 넣어 장식하는 褐彩點紋을 볼 수 있으며, 唐代에도 湖南省 長沙窯⁶⁰ 등지에서도 갈색의 釉下彩 장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18
中國 廣州 西村窯 出土
鐵畫紋瓷器類

도 19
中國 浙江省 慈溪市
寺龍口窯址 出土
鐵畫紋長鼓

그러나 중국에서 흑화기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것은 북방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五代末-宋初부터 陝西 耀州窯, 河北 磁州窯, 河南의 修武當陽谷窯·鶴壁集窯, 禹縣 扒村窯, 登封 曲河窯, 山西 介休窯 및 남방의 江西 吉州窯⁶¹ 등지에서는 백색 바탕에 검은색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주요에서는 현지에서 산출되는 大靑土의 질이 나빴으므로 태토 위에 白土粉粧하여 장식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지주요의 독창적 장식방법은 광범하게 영향을 미쳐 五代, 宋, 金, 元代를 거치면서 중국 북방에서 남방에 이르는 전역에서 白地黑花를 생산하는 요장들이 다수 출현하였다. 위에 열거한 요장들 외에도 山西省, 山東省, 四川省,⁶² 湖南省, 安徽省, 江西省, 廣東省, 廣西壯族自治區, 福建省 등지에 유사한 요장들이 분포하며 이들을 '磁州窯系'로 불리운

⁵⁹ 黑彩라고도 하며 안료의 성분과 관계없이 문양이 검은색으로 발색되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도 흑색 문양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안료나 유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장 광범하게 黑花로 부르며 우리나라에서처럼 안료의 성분에 따라 鐵畫, 銅畫 등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⁶⁰ 長沙窯課題條編, 『長沙窯』(紫雲省出版社, 1996); 李效偉 著, 『長沙窯—大唐文化輝煌之焦點』(湖南美術出版社, 2003, 11).

⁶¹ 煥文程 主編·余家棟 著, 『江西 吉州窯』(嶺南美術出版社, 2002).

⁶² 耿寶昌 主編, 朱清時·俞偉超 副主編, 『鞏窯古陶瓷研究』(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2002, 合肥).

다.⁶³

특히 남방 廣東省 廣州의 西村窯⁶⁴나 潮州窯,⁶⁵ 福建省 德化窯 屈斗宮 요지⁶⁶와 磁窰窯⁶⁷ 등지에서는 백토분장을 하지 않고 청자 위에 흑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주요의 영향권에 있었던 內蒙古自治區, 寧夏回族自治區 등遼 영내 여러 요지들에서도 같은 장식기법이 사용되었다.⁶⁸ 또 전형적인 월주요계 요장인 浙江省 慈溪市 寺龍口 요지 후기층에서 철화 장고편이 1점 출토되어 그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⁶⁹도 19.⁶⁹

따라서 국내에도 이와 같은 조형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문양기법 등에는 차이가 있다. 즉 자주요계는 白土粉粧을 한 후 鐵彩를 하거나, 백토분장을 한 후 철채하고 그 면을 깎아서 장식을 하거나, 백토분장 후 박지하고 그 바탕에 철채를 하여 문양을 검은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제작품 가운데 중국적 시문장식을 취한 것은 용인 서리 중덕 요지 출토 장고편으로 백자 위에 赭土를 전면 바르거나 자토 바른 면에 백상감한 것이다.

또 해남 진산리 요지군에서도 철채 후 剝地하고 바탕에 백토를 덧바르는 철백화장식 등은 다분히 중국 북방적 기법으로 생각된다. 또 모란문이 즐겨 사용되는 점이나 아래 위에 연판문대를 배치한 방식도 중국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청자 태도에 바로 철화를 시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법의 연원과 관련하여 중국 남방의 西村窯나 潮州窯 관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⁷⁰ 실제로 서촌요에서 제작되는 洗 등에서는 황갈색조를 띠며 내면 바닥에 활달한 필

⁶³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文物出版社, 1997, 北京); 『白と黒の競演』中國磁州窯系陶器の世界展(大阪市立美術館, 2002, 10); 『磁州窯』中國の陶磁 7(平凡社, 1996).

⁶⁴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香港中文大學文物館合編, 『廣州西村窯』(香港中文大學中國考古藝術研究中心, 1987).

⁶⁵ 廣東省博物館·香港大學馮平山博物館, 『廣東唐宋窯址出土陶瓷』(香港大學馮平山博物館,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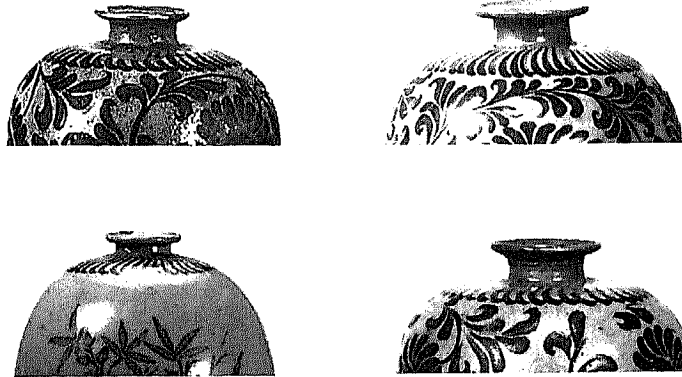
⁶⁶ 福建省博物館, 『德化窯』(文物出版社, 1990).

⁶⁷ 何振良·林德民, 『磁窰窯』(福建美術出版社, 2002).

⁶⁸ 路菁 著, 『遼代陶瓷』(遼寧書報出版社, 2003). 內蒙古 赤峰의 缸瓦窯와 遼寧省 江官屯窯 등지에서 白地黑花瓷가 생산되며, 이 밖에 西夏(1032-1227)시기 湖南省 湘陰窯에서도 생산되었다.(周世榮·劉永池, 『湘陰白梅窯』, 『中國古陶瓷研究』 第九輯(紫禁城出版社, 2003), pp.30-46.)

⁶⁹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284.

⁷⁰ 西田宏子, 앞의 논문, pp.53-42.



도 20
水平口緣 鐵畫紋梅瓶

치로 철화를 그리는 예들이 남아 있어 추후 중국 관련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매병의 구연부 형태와의 연관성이다. 철화 매병의 구연으로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도기와 청자에 두루 사용되던 전형적인 盤口形이 일반적이는데 드물게 구연이 짧게 올라서서 수평으로 벌어진 형태가 보인다. 이 같은 구연을 가진 매병들은 아래 위에 연판문대를 꼭 차게 두르고 등체 전면에 국당초문을 비교적 정성스럽게 시문한 것이 많다(도 20). 이는 중국 11-12세기 이후 자주요 매병에서 보이며 14세기 경덕진 청백 자류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약간씩 달리하며 나타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구연을 가진 경우 어깨에서 저부에 이르는 선이 날렵하지 않고 경직되어 있어서 14세기 중국 매병들이 보여 주는 특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매병의 국내 제작시기는 12세기 이후일 것으로 생각된다.⁷¹

앞서 중국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내 철화자기들 가운데 중국 북방(특히 자주요계)에서 제작되었던 수평구연 매병 및 섬세한 黑地刻花 기법 등이 일부에 나타났다. 중국 남방 지역에서는 광둥 및 복건 지역 요장에서 나타나는 盤(洗) 등이 유사했고, 백토분장 없이 붓으로 활달하게 기면 내부에 문양을 그리는 방식이 매우 유사했다. 또 청자의 質이 비교적 거칠고 황갈색을 띠는 점이나, 대형기물들의 구연을 서로 포개 굽는 방식 또한 유사했다. 따라서 필자 생각으로는 북방 자주요계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남방계의 제작방식과 패턴에 가까운 것으로 추측되었

⁷¹ 鄭良謨·秦華秀, 『高麗陶器銘文』(國立中央博物館, 1992), p.114-115(도110), p.118(도112). 이 도록에서는 이와 같은 구연을 가진 매병을 11세기로 편년하였다.

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철화를 주로 생산한 해남 지역에 대한 정식 발굴은 1곳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의 영향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국내 철화자기 생산 과정에서 국내 각지의 제작 실정에 맞게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추측된다.

철화자기의 제작 유형과 시기

각 요지에서 생산되는 철화자기의 양은 많은 편은 아니다. 조사가 이루어져 개체량 분석이 이루어진 요지를 중심으로 제작 유형과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흥 방산동 최상층인 III기층에서 출토되는 철화 장고는 동반 출토유물로 볼 때 용인서리 III기층의 전단계에 해당하며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로 생각된다.⁷²

용인 서리 중덕의 경우 1-3차 조사에서 철화는 전체 수량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2, 3차 출토품 20여 점 가운데 장고는 II기층에서 5점, III기층에서는 18점으로 나타나 주로 III기층 시기에 집중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굴보고에 의하면 전체량의 75% 이상이 III기층 시기에 생산된 것이다.⁷³ 철화문도 이들 장고 외에 배개 등 특수 기종 일부에서 나타나 특수 용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용인 서리 중덕 요지에서 백자 생산이 더욱 증가함은 물론 한국식 해무리굽 원이 생산되는 서리 요업 전체에서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이다. 시간적으로 시흥 방산동과 비교하면 방산동 최후 단계 다음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덕 요지는 퇴적 양상으로 보아 III기층의 시기 폭이 넓고 철화문편들이 III기층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11세기 전·중반부가 그 중심 시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용인 서리 상반 지역 역시 발굴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3차에 걸친 부분 발굴에서 개시시기가 서리만큼 올라갈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일정시기 요업이 중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철화문이 있는 장고편 역시 서리 유형과 거의 같으며 동반 유물도 비슷하여 같은 시기이거나 약간 늦은 시기 생산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칠곡 창평리 요지는 전축요계 가마이면서 철화 장고편과 함께 옥환저계 대접이 출토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용인 지역 철화생산 단계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⁷² 본고 註33의 보고서 및 논문 참조.

⁷³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I.

한편 토축요계 요지에서 철화문이 나타나는 것은 전남 지방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인다. 해남 진산리의 경우 반구장경병과 매병 등이 비교적 많이 제작되는 점과 일부 접시 및 요도구 등의 유사성에서 강진 지역 요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산리 출토품은 이른 시기 층에서 극히 드물게 한국식 해무리굽을 동반하지만 반구형 장경병과 특히 매병의 형태와 문양 등으로 볼 때⁷⁴ 용운리 10호 II층 '가' 유형 시기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재천 송계리 요지에도 해당된다.

일본 福岡의 博多 鴻臚館 유적에서도 1048년 화재로 소실된 층위 위쪽에서 해무리굽원을 동반하는 한국 청자류는 11세기 중엽에 비정되는데⁷⁵ 이 지역의 築港線 1차 조사 39호 출토 유물 일괄품 가운데 강진 용운리 10-II층 '가' 유형에 해당하는 U-1형식 접시가 12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중국산 용천요 청자 등과 함께 출토되어 그 제작시기를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용운리 10호 경우 II층 '가' 유형에서는 회화적인 철화문이 등장하지만 또 II층 '나' 유형에서는 접시에만 철화기법이 나타나며 문양이 있는 접시 중 12.3%에 해당하는 37점에서 철화문이 확인되었다. 용운리 10호 II층 '나' 유형은 발굴되적 층위상 '가' 유형보다 상층부에 해당하므로 강진 용운리 10호 경우 초기의 철화에서는 회화적인 문양이 보이나 시기가 늦을수록 點이나 線 등 장식적이고 단순한 문양으로 변화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안 지역에서도 白畫點紋을 시문하는 경우가 뚜렷하게 늘어나 일치한다.

위의 양상은 강진 지역 청자요지 18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용운리에서는 10호를 제외하고 7개 지역에서, 계율리는 6개 지역에서, 사당리는 3개 지역에서 철화편이 수습되었다. 강진 II유형에 해당하는 시기의 철화는 대접에 철화문이 있는 것으로 계율리 19호 1곳이었으며, 나머지 16개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III유형 시기의 제작품이었다. 따라서 지표조사로 볼 때 강진은 해남에 비해 철화의 빈도수가 낮으며 전반적으로 12-13세기경에 철화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진산리 일대 철화생산 요지들 가운데 정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17

⁷⁴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 I층에서는 매병이 확인되지 않았다.

⁷⁵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分類試案」, 『博多研究會誌』 제8호(2000, 9), pp.41-75; 張南原, 「康津類型 共有 現狀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pp.77-100;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pp.172-173; 片山まび, 「九州地域에서 出土된 高麗靑磁에 대하여—初期資料에 관한 編年問題를 중심으로」,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pp.43-76.

... 1곳뿐이고 지표 수습품 가운데 늦은 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있는 만큼 강진 지역과 해남 지역이 어느 기간 동안 서로 보완적인 생산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는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瓷鐵畫燒錢色銘盞과 靑瓷鐵畫燒錢色銘椀匙片 등에는 문양은 없지만 13세기 말 국가에서 행하는 祭享이나 기도에 사용되는 술 관리를 위해 설치한 '燒錢色'의 이름이 명문으로 남아 있고,⁷⁶ '至正二年'(1342)의 명문이 있는 반구병⁷⁷ 등이 있어서 철화자기의 하한은 고려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철화자기의 質은 요지에서의 번조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진산리 지역은 거의 같은 내화토받침을 사용하지만 고급품에 규석받침을 사용했던 강진이나 부안 지역을 보면 철화는 규석받침을 사용했던 고급의 청자류(IV유형)보다는 모래빛음받침을 사용하는 청자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급기에서는 철화를 사용하는 예가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시대에 유행하는 상감기법이나 양각기법 등과 구별하여 제작 단계에서 이미 質의 차이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質의 분화와 계통을 달리하는 생산은 다양한 技術群이 공존했던 남부 지역 요장들에서는 가능했던 것으로 같은 유형의 자기를 생산하면서도 해남에서는 철화문으로, 강진에서는 음각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 장고나 매병처럼)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맺음말

지금까지 철화기법의 자기를 생산한 요장과 생활유적 등을 통해 고려 철화자기의 조형 특징과 생산유형, 개시시기와 변화과정을 추론해 보았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철화자기는 항아리, 반구형 장경병, 매병 등 특수기가 비교적 많고鉢이나 碗, 접시 등과 함께 동반되는데 동반 청자나 백자들보다 철화자기의 질이 낮았으며 대체로 금속기나 고급자기 및 도기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구색을 맞추어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기 요지 출토품 가운데 철화의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경기도의 시흥 방산동·용인 서리 중덕·상반, 용인 보정리, 전남의 해남 진산리, 강진 용운리·계율리·사

⁷⁶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國立中央博物館, 1992), 도판 108, 109.

⁷⁷ 『高麗靑磁の鐵繪と鐵形』, 朝鮮陶磁シリーズ-9, Fig.10: 鄭良謨, 『靑磁至正二年詩銘瓶』, 『考古美術』1-100合集, 通卷38號(韓國美術史學會, 1979), p.443; 구일희, 『東垣先生 寄贈靑磁에 관한 一考察』, 『東垣學術論文集』第3輯(韓國考古美術研究所, 2000), p.14.

당리, 전북 부안 진서리·유천리 일대 요지와 충북 음성 생리, 강원도의 강릉 사기점골, 양구 방산 상무룡리, 경남 양산 화제리, 부산시 온천동·덕포동 등 전국적인 생산 분포를 보였는데, 소비유적 출토 예로 보면 철화를 생산했던 지방 요장들은 고려중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화기법의 국내 시작은 중서부 지역 전축요계 초기 요장으로 파악되었으며 철화기법은 이 요장들이 백자 생산단계로 전환되면서 백자로 먼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시흥 방산동을 필두로 그 다음 시기 용인 서리 일대와 경북 칠곡에서도 전축요계 가마에서는 철화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남 해남 지역이었으며 11세기 말경에는 강진 지역에서도 철화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12세기 후반경부터는 해남 지역 철화자기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화기법은 개시시기에 주로 장고나 베개 등 특수 기종에서 나타나며 장고 외에 반구형 장경병이나 매병 같은 저장·운반용 생활기에 철화가 시문되는 것은 해남 지역에서 발달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 강진 일대에서는 장고는 물론이고 매병과 반구형 장경병 등에서도 음각이나 고부조 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고 철화가 시문되는 예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문양은 기종에 따라 구성이 치밀한 것과 소략한 것이 있으나 해남 진산리 지역품은 대개 활달하고 철화시문 비율이 높아 전면을 꼭차게 장식하는 예들이 많고 지방에서 제작되는 예들은 구성이 단순한 초화문이 많으며 문양도 성근 구도를 보이고 있다. 강진과 부안에서는 고려중기 이후 원이나 잔, 접시 같은 소형기에 철화가 나타나며 특히 접시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시기가 늦을수록 鐵白畫点이나 線紋 위주로 바뀌어가고 철화의 비중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문양 시문기법과 기형 등에서 중국 북방 및 남방 요장의 영향관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철화자기 생산이 남부 지방으로 집중되면서 철화와 강진산 해무리굽 청자와 동반된 예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용운리 10호에서는 Ⅱ층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남부 지방에서 철화 제작이 본격화되는 것은 11세기 말부터 12세기 들어서 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남 진산리에서 생산하였던 철화자기는 강진 청자와의 관계에서 지역적·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강진산 고급 청자와 해남산 조질청자의 보완관계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남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철화자기류가 강진 등 고급청자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것인지에 대한 운영 체제면에서의 접근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러나 해남 지역에 남아있는 일정한 제작기술과 가마군의 규모로 볼 때 주체가 누구이든 公的인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지면상 철화기법과 함께 발달하는 白畵 및 철채기법의 상관관계 및 동시대 고급 장식인 상감기법 등과의 상관관계, 철화기법의 세부적인 변천과정 등을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는 필자의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鐵畵瓷器(Underglazed Iron Porcelain), 長鼓(*Janggo*), 盤口長頸瓶(Vases with Long Neck and Wide Opening), 山二面(*Sanih-myeon*), 西村窯(*Xicun-yao*), 磁州窯(*Cizhou-yao*)

참고문헌

단행본

-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 高裕燮 著·秦弘燮 譯, 『高麗青瓷』, 삼성문화문고 94, 삼성문화재단, 1977.
-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國書刊行會, 1944.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曹基正, 『靑磁小考』, 無等山窯·土炆 陶磁文化研究院, 1987.
- 鄭良謨·秦華秀, 『高麗陶磁銘文』, 國立中央博物館, 1992.
- 長谷部樂爾 監收, 『磁州窯』中國の陶磁 7, 平凡社, 1996.
- 耿寶昌 主編, 朱清時·俞偉超 副主編, 『鞏窯古陶瓷研究』, 中國科學技術大學出版社, 2002, 合肥.
- 『白と黒の競演』中國磁州窯系陶器の世界展, 大阪市立美術館, 2002, 10.
- 李效偉 著, 『長沙窯—大唐文化輝煌之焦點』, 湖南美術出版社, 2003, 11.

보고서

- 『各地試·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0.
-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圖版編, 國立中央博物館, 1996.
-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本文編, 國立中央博物館, 1997.
- 『康津의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1992.
- 『강진삼흥리 저수지 송상사업지구내 도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 지부·(財)湖南文化財研究院·國立光州博物館, 2002.
- 『江華碩陵』, 國立文化財研究所, 2003.
- 『居頓寺址發掘調査報告書』, 原州市·翰林大學校博物館, 2000.
- 『慶山林堂遺蹟』(I)·(III), 한국토지공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 『公州金鶴洞古墳群』,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2000.
-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I(도판편),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89.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전라북도 익산지구문화유적 관리사업소, 1997.
- 『扶安 柳川·鎮西里靑瓷窯址 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94.
-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 扶安郡, 2001.
- 『扶安 鎮西里 靑瓷窯址』,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1.

- 『楊口 方山の 陶窯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양구군, 2001, pp.194-197.
-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I, 三省美術文化財團 · 湖巖美術館, 1987.
-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II, 湖巖美術館, 2003.
- 『용인서리 상반 3차발굴 현장설명회 자료』,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4, 1.
- 『陰城 筍里 청자가마터』, 忠北大學校博物館 · (주)등부건설 · (주)원림개발, 2002.
- 『海南郡 山二面 綠靑磁陶窯址—全南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 木浦大學校博物館, 1987.
- 『海南 珍山里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海南郡, 1992.
- 『海南의靑磁窯址』, 해남군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 『淸州 龍岩遺蹟(II)—本 文』,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韓國土地公社, 2000.
- 『忠州 丹月洞 古墳群—2次發掘調査報告書』, 建國大學校博物館, 1995.
- 『忠州山城 및 直洞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 · 忠州市, 1986.
-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개요』, 목포대학교박물관 · 호남문화재단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2001.
- 福建省博物館, 『德化窯』, 文物出版社, 1990.
- 北京大學考古學系 · 河北省文物研究所 · 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 北京: 文物出版社, 1997.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 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 長沙窯課題條編, 『長沙窯』, 紫禁省出版社, 1996.

논문

- 김구근, 「大邱近郊의 初期靑磁窯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海剛陶磁美術館, 2000, pp.37-53.
-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陶藝VI, 靑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p.73-93.
- _____, 「莞島海底出土 陶瓷器의 綜合的 考察」,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p.160-203.
- 이송희, 「莞島海底 出土 瓷器를 통한 綠靑磁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12.
- _____, 「發掘窯蹟을 통해 본 埴築窯의 運營時期 考察—시흥방산동과 용인서리 요적을 중심으로」,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 용인문화원 · 인시사편찬위원회,

- 2001, pp.33-61.
- 張南原,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 도록,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9, pp.176-185.
- _____, 「康津類型 共有 現狀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31, 韓國美術史學會, 2001. 9, pp.77-100.
- _____,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 2003.
-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p.15-32.
-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1989, pp.268-283.
- _____, 「靑磁至正二年詩銘瓶」, 『考古美術』 1-100호 합집(上卷), 韓國美術史學會, 1979, p.443.
- _____, 「三陟郡 北坪邑 三和里出土 高麗時代 遺物一括」, 『考古美術』 129·130, 韓國美術史學會, 1976, pp.190-199.
-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美術史研究』 12, 미술사연구회, 1998, pp.3-20.
- _____, 「鐵畫靑磁의 特徵과 展開」,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靑瓷 III』, 湖林博物館, 1996.
- _____,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특히 9-10세기 자요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용인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小學館, 1978, pp.131-178.
-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의 高麗·朝鮮陶磁分類試案」, 『博多研究會誌』 第8號, 2000. 9, pp.41-75.
- 西田宏子, 「高麗鐵繪靑磁에 대한 考察—鐵繪靑磁의 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29, 國立中央博物館, 1981, pp.53-42.
- 伊藤郁太郎, 「高麗靑磁의 鐵繪와 鐵彩」, 『高麗靑磁의 鐵繪와 鐵彩』, 朝鮮陶磁シリーズ-9,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7, pp.18-20.
- 長谷部樂爾, 「鐵繪靑磁·鐵彩手·鐵釉」,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小學館, 1978, pp.179-189.
- 片山まび, 「九州地域에서 出土된 高麗靑磁에 대하여—初期資料에 관한 編年問題를 중심으로」,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pp.43-76.

ABSTRACT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Underglazed Iron Celadon and White Porcelain of Goryeo Period

Chang, Namwon

In ceramics, the method of underglazed iron is the drawing of patterns by using oxidized iron, used broadly for a long time from the Goryeo (高麗) period up onto the modern ages in Korea. It was during the Goryeo period that the underglazed iron method was used more substantially in ceramic decoration, and it is known that the celadon kiln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round Sanih-myeon (山二面) in Haenam (海南), Jeonnam (全南) region were the main production sites.

The original production is understood to have been related to the kilns in China, such as Xicun-yao (西村窯) of Guangzhou (廣州), Cizhou-yao (磁州窯) and Ding-yao (定窯) of Hebei (河北), and Yaozhou-yao (耀州窯) of Shaanxi (陝西). Within Korea,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theories that point to the start of the underglazed iron method—some say 10th century, while others the 11th century.

However, recently, as more kilns are successfully excavated, it has become possible to deduce the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layers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duction sites were much broader—ranging from the central region to the Gangwon (江原) region. It has also become known that not only celadon, but also white porcelain were produced.

Porcelain with patterns in underglazed iron were found frequently in early celadon kilns, in forms such as vases, jars and other large special vessels such as the Korean percussion instrument '*Janggo* (長鼓)'. However, in the mid-celadon kilns, they were used more in small everyday vessels such as bowls and plates.

This shows that the u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rcelain with patterns in underglazed iron changed over the different periods. Underglazed iron porcelain are excavated not only in kilns but also in remains of sites of ordinary living. There, they are mostly jars, vases with long neck and wide opening, and meipings, and they are found together with high quality celadon or white porcelain. It seems that underglazed iron porcelain we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different from celadon or white porcela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rcheological excavations, the production period of underglazed iron porcelain of the Goryeo era coincides with the latter 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of bowls with Korean style *pi* (璧)-shaped foot ring. In early celadon kilns of center-west regions of the peninsula, it coincides with the final production period of bowls with Korean style *pi* (璧)-shaped foot ring, and in the Gangjin (康津) region, underglazed iron porcelain appeared in the next step after the production of the bowl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underglazed iron porcelain began to be regularly produced between the end of 11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12th century, and reached its peak in the first half of 12th century. Between the end of 12th century and beginning of 13th century, the production of underglazed iron porcelain ended in the Haenam region, while in the Gangjin region, they continued as passive patterns that decorate only some porcelain such as plates.

In conclusion, studies have found that, in terms of production, underglazed iron porcelain have regional differences, and that in terms of usag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It has also been found that they had a supplementary supply and demand relationship with the high quality celadon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